

# kiat

## 산업기술 동향 위치

2026-06호



### 이슈포커스

미국 첨단기술 제품의 무역 경쟁력 분석 (美 ITIF, 3.2)

### 산업기술동향

'30년 산업 제조업 경쟁 전망 (PwC, 2.27)

'26년 글로벌 자동차 부품 산업 현황과 대응 전략 (美 BCG, 3.5)

영국 배터리 산업 구조와 시장 동향 (英 DBT, 2.26)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의 미국 시장 전략 (日 하마긴종합연구소, 2.24)

### 정책동향

미국 제조업 분야 과잉 생산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美 USTRS, 3.11)

미국 제조업 리쇼어링의 병목 : 인력 부족 문제 (美 CSIS, 2.27)

미국 전략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한 산업 정책 부활 (美 CSIS, 2.26)

유럽 자동차 반도체 산업 공급망 강화 방안 (歐 CLEPA, 2.27)



# kiat

## 산업기술 동향 위치

2026-06호



### 이슈포커스

미국 첨단기술 제품의 무역 경쟁력 분석 (美 ITIF, 3.2)

### 산업기술동향

'30년 산업 제조업 경쟁 전망 (PwC, 2.27)

'26년 글로벌 자동차 부품 산업 현황과 대응 전략 (美 BCG, 3.5)

영국 배터리 산업 구조와 시장 동향 (英 DBT, 2.26)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의 미국 시장 전략 (日 하마긴종합연구소, 2.24)

### 정책동향

미국 제조업 분야 과잉 생산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美 USTRS, 3.11)

미국 제조업 리쇼어링의 병목 : 인력 부족 문제 (美 CSIS, 2.27)

미국 전략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한 산업 정책 부활 (美 CSIS, 2.26)

유럽 자동차 반도체 산업 공급망 강화 방안 (歐 CLEPA, 2.27)



# 산업기술 동향위치 2026년 6호 요약

구분	주요 내용	페이지
이슈 포커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첨단기술 제품의 무역 경쟁력 분석 (美 ITIF, 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10년간 미국 첨단기술 제품의 무역 성과 분석을 통해, '14년 무역흑자에서 '24년 대규모 적자로 전환되는 등 전략 산업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된 것을 확인하고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한 국가 전략 산업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언</li> </ul> </li> </ul>	1
산업·기술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년 산업 제조업 경쟁 전망 (PwC, 2.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I·자동화·산업 융합 확산에 따라 '30년까지 구조적 전환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며, 기술 도입을 실제 성과로 전환하는 실행 역량과 데이터 기반 혁신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인으로 부상</li> </ul> </li> </ul>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6년 글로벌 자동차 부품 산업 현황과 대응 전략 (美 BCG,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차·SDV·자율주행차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재편되는 가운데, 공급망 비용 상승과 수요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5대 핵심과제(▲수익 구조 재설정 ▲다지역 분산 공급망 구축 ▲미래 수익원 분야 선제 진출 ▲AI 기반 운영 ▲AI 시대 인재 전략 재정립) 실행 필요</li> </ul> </li> </ul>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국 배터리 산업 구조와 시장 동향 (英 DBT, 2.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업 중심의 매출 편중 구조가 뚜렷하며, 기업 수와 매출액에서 모듈·팩과 배터리 등급 소재 분야가 큰 비중을 차지</li> </ul> </li> </ul>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의 미국 시장 전략 (日 하마킨종합연구소, 2.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 인상 등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일본계 자동차 제조업체는 '합리적 가격'과 하이브리드차(HEV)를 중심으로 현지 생산 확대를 통해 미국 시장 내 경쟁 우위 확보 추진 필요</li> </ul> </li> </ul>	6
정책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제조업 분야 과잉 생산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美 USTRS, 3.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교역국의 구조적 과잉 생산이 제조업을 저해하고 재산업화 추진을 제약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무역법 301조(Section 301) 조사에 착수</li> </ul> </li> </ul>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제조업 리쇼어링의 병목: 인력 부족 문제 (美 CSIS, 2.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숙련 기술 인력 부족을 정책의 핵심 장애 요인으로 지목하고, 인력 확충을 위한 교육·이민·통상 정책 방향을 제언</li> </ul> </li> </ul>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전략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한 산업 정책 부활 (美 CSIS, 2.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부의 대규모 지원에도 불구하고 광물 프로젝트는 여전히 경제적·기술적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핵심 광물 지원 정책이 안정적인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과 지속적인 민간 투자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조치 추진 필요</li> </ul> </li> </ul>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럽 자동차 반도체 산업 공급망 강화 방안 (歐 CLEPA, 2.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EU 반도체법」이 생산 확대와 공급망 안정성을 목표로 하나 자동차 반도체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역내 반도체 생태계 지원을 법 개정 방향을 제시</li> </ul> </li> </ul>	10

## 이슈포커스

## 미국 첨단기술 제품의 무역 경쟁력 분석 (美 ITIF, 3.2)

-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지난 10년간 미국 첨단기술 제품\*의 무역 성과를 분석한 결과, 전략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한 국가 전략 산업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언

\* 미국 인구조사국이 분류한 10개 첨단기술 제품 그룹 중 무기공학을 제외한 9개 그룹(바이오공학, 생명과학, 광전자공학, 정보통신, 전자제품, 유연제조, 첨단소재, 항공우주, 원자력)을 분석

- 첨단기술 제품을 생산하는 전략 산업은 국가안보에 핵심적인 민군겸용 분야로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군사력, 경제 복원력, 지정학적 영향력을 뒷받침
- 현재 미국은 첨단 산업 분야에서 순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 하락, 규모의 경제 약화, 자금 조달 역량 감소를 의미하며 해당 부문에 의존하는 핵심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유발
- '14년 9개 첨단기술 분야에서 무역흑자를 기록했던 미국은 '24년 큰 폭의 적자로 전환하여, 같은 기간 수입액이 2,140억 달러에서 7,620억 달러로 256% 상승한 반면 수출액은 2,430억 달러에서 4,620억 달러로 90% 증가하는 데 그쳐 수입 증가폭 하회
  - ※ 동 보고서의 무역수지는 첨단기술 제품 그룹별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차감해 산출한 것으로, 각 그룹의 수입·수출 품목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 무역수지와는 상이
  - 미국의 주요 수입국은 EU(1,800억 달러, 24%), 중국(1,120억 달러, 15%), 멕시코(1,020억 달러, 13%), 한국(290억 달러, 4%), 일본(280억 달러, 4%)으로 이들 5개 지역이 59%를 차지
    - ※ '14년 해당 분야에서 미국의 최대 수입국은 중국이었으나 이후 EU발 수입이 339% 증가하며 '24년 1위로 자리 매김했는데, 이는 무역제한 조치와 일부 서구 기업의 첨단기술 제품 생산시설 탈중국 이전이 원인으로 작용
    - 주요 수출국은 EU(1,120억 달러, 24%), 멕시코(560억 달러, 12%), 중국(430억 달러, 9%), 일본(210억 달러, 5%), 한국(130억 달러, 3%)의 순
      - ※ '14~'24년 증가율은 EU 152%, 멕시코 112%, 한국 87%, 중국 79%, 일본 51%
      - 미국의 무역수지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지역은 EU로 '14년 33억 달러 흑자에서 '24년 680억 달러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32억 달러 흑자였던 멕시코 역시 465억 적자로 역전
        - ※ 그 외 ▲(일본) 2.5억 달러 흑자→70억 달러 적자 ▲(한국)20억 달러 흑자→157억 달러 적자 ▲(중국) 590억 달러 적자→690억 달러 적자
  - 9개 제품 그룹 중 수입이 수출을 초과한 그룹 또한 '14년 5개에서 '24년에는 8개로 확대

▪ 9개 첨단기술 제품 그룹별 무역수지 추이('14~'24)

구분	주요 무역 성과
바이오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PT 그룹 정의) 유전학 연구 성과를 의약품, 기타 치료용 물질 개발에 적용하는 의료·산업 응용 분야</li> <li>(무역수지) 수입 4억 1,500만 달러→1,250억 달러(301배 ↑), 수출 15억 달러→570억 달러(36배 ↑), 무역수지 11억 달러 흑자→680억 달러 적자</li> </ul>
생명과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PT 그룹 정의) 생물학 분야 외의 과학적 발전을 의학 분야에 적용하는 제품</li> <li>(무역수지) 수입 380억 달러→730억 달러(92% ↑), 수출 290억 달러→400억 달러(40% ↑), 무역수지 92억 달러 적자→330억 달러 적자</li> </ul>
광전자 공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PT 그룹 정의) 광학 스캐너 등 빛의 방출·감지 기능을 수반하는 전자 제품 및 부품</li> <li>(무역수지) 수입 41억 달러→330억 달러(7배 ↑), 수출 30억 달러→64억 달러(118% ↑), 무역수지 12억 달러 적자→270억 달러 적자</li> </ul>
정보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PT 그룹 정의) 중앙처리장치와 같이 정보 처리 양은 증대하고 시간은 단축하는 제품</li> <li>(무역수지) 수입 1,290억 달러→3,540억 달러(175% ↑), 수출 610억 달러→1,230억 달러(104% ↑), 무역수지 690억 달러 적자→2,310억 달러 적자</li> </ul>
전자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PT 그룹 정의) 광전자 부품을 제외한 전자 부품 분야의 최신 설계 혁신을 통해 성능·용량 개선 및 소형화를 구현한 제품(반도체, 집적회로, 다층 인쇄회로 기판 등)</li> <li>(무역수지) 수입 46억 달러→880억 달러(18배 ↑), 수출 150억 달러→720억 달러(3.7배 ↑), 무역수지 101억 달러 흑자→160억 달러 적자</li> </ul>
유연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PT 그룹 정의) 제조 공정의 유연성을 높이고 인력 개입을 최소화하는 로봇, 수치제어 공작기계 등 산업 자동화 제품</li> <li>(무역수지) 수입 127억 달러→199억 달러(57% ↑), 수출 147억 달러→193억 달러(31% ↑), 무역수지 20억 달러 흑자→6억 3,100만 달러 적자</li> </ul>
첨단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PT 그룹 정의) 반도체 소재와 같이 다른 첨단 기술의 추가 개발·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최근의 소재 개발 성과를 반영한 제품</li> <li>(무역수지) 수입 22억 달러→42억 달러(92% ↑), 수출 22억 달러→42억 달러(94% ↑), 무역수지 5,100만 달러 적자→5,400만 달러 적자</li> </ul>
항공우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부분의 신형 군용, 민간 헬리콥터, 항공기, 우주선으로 구성(정보통신기술 분야 통신 위성은 제외되나 터보제트 항공기 엔진, 비행 시뮬레이터, 자동 조종 장치 등은 포함)</li> <li>(무역수지) 수입 200억 달러→590억 달러(192% ↑), 수출 1,160억 달러→1,380억 달러(19% ↑), 무역수지 960억 달러 흑자→790억 달러 흑자</li> </ul>
원자력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PT 그룹 정의) 원자력 발전 설비, 원자로 및 부품, 동위원소 분리 장비, 연료 카트리지 등(생명과학에 포함되는 핵의료 기기는 제외)</li> <li>(무역수지) 수입 29억 달러→50억 달러(71% ↑), 수출 약 10억 달러→9억 5,900만 달러(10% ↓), 무역수지 19억 달러 적자→40억 달러 적자</li> </ul>

- 순무역 적자 부문 확대는 특정 부문의 문제가 아닌 미국의 입지 약화를 시사하므로, 전략 산업 우선 지원, 시장의 핵심 역량 유지 유도, 단기 효율성보다 장기 경쟁력 확보를 지향하는 국가 핵심산업 전략 수립·시행이 필요

(참고 : ITIF, The Alarming Performance of US Advanced Technology Product Trade, 2026.03.02.)

## 산업·기술 동향

### '30년 산업 제조업 경쟁 전망 (PwC, 2.27)

- 글로벌 컨설팅·회계 기관 PwC는 산업 제조업이 AI·자동화 확산과 산업 융합을 중심으로 '30년까지 구조적 전환을 겪을 것으로 전망
    - 기술을 실제 성과로 전환하는 실행 역량이 제조업 경쟁의 핵심 차별화 요소로 부상할 것으로 보고, 미래 대응 기업과 비대응 기업 간 격차 확대를 경고하며 전사적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
  - PwC가 전 세계 24개 지역 산업 제조 기업 고위 경영진 4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약 16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산업 제조업은 AI·자동화·산업 간 융합이 가속화되는 변곡점에 진입
    - '30년까지 가치사슬 전반의 기술 도입 수준이 2.6배, 자동화 수준이 2.8배 확대되고, 고도로 자동화된 공정을 보유한 산업 제조업체의 비중 중앙값이 현 18%에서 50%로 대폭 상승 예상
    - 미래 대응 선도 기업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데이터 공유와 조직 문화 혁신을 기반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규 수익원 창출에 집중하는 한편, 고객 중심·운영 최적화·제품 리더십 전략 구현을 위해 숙련 인력 양성과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병행할 것으로 관측
- ※ 이들 기업은 '30년까지 전체 매출의 44%가 전통적인 산업 및 소비자 제조 이외의 영역에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

#### ▪ 산업 제조업 디지털 전환 현황 및 전망 ▪

분류	세부 항목(예시)	현재	'30년
첨단기술 활용	생산 및 운영	29%	76%
	제품 설계 및 개발	37%	72%
	제품 생애 주기 관리	31%	69%
	자산 및 공장 생애 주기 관리 (유지보수 등)	26%	68%
	비즈니스 지원 기능 (재무·인사·법무 등)	18%	68%
핵심 공정 자동화	데이터 캡처 및 분석	25%	67%
	행정 및 지원	15%	53%
	물리적 생산	22%	52%
	의사 결정 지원 및 계획 (수요 예측 등)	16%	51%
	품질 보증 (결함 탐지 등)	21%	50%

- 경영진의 70%가 성장 최우선 과제로 '내부 역량 개발'을 지목한 가운데 디지털·데이터 인프라 구축과 업스킬링 투자도 미비한 상황이며, AI·자동화·데이터 분석·엔지니어링을 통합적으로 조율하는 역량이 기업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각

(참고 : PwC, PwC Sector Outlook: Industrial manufacturing's race to 2030, 2026.02.27.)

## '26년 글로벌 자동차 부품 산업 현황과 대응 전략 (美 BCG, 3.5)

- 미국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높은 금리, 고착화된 투입 비용, 노동력 부족, 지정학적 긴장이 상시화된 환경(Harsher New Normal) 속에서 글로벌 자동차 부품 산업 현황을 진단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

  - 자동차 부품 산업이 전기차,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SDV, software-defined vehicles), 자율주행차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부품 공급업체의 수익 구조와 경쟁 구도가 재편
- 현재 미국 내 인플레이션, 노동 시장 경색, 무역 가중 평균 관세율 최고치(약 16%) 도달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비용 구조와 조달 전략이 재편되는 가운데, 전기차(BEV) 수요 변동성(당초 예측 대비 최대 4배 차이)이 확대되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역량 확보 필요성 제고

  - 수요 부진에도 '25년 공급업체의 영업이익률(EBIT)은 약 5.7%로 완성차(OEM, 4.8%)를 상회할 전망이나, 상·하위 25% 기업 간 성장률 격차는 더욱 심화되는 양상
  - '19~'24년 동안 신규 영역인 반도체 및 배터리 공급업체가 각각 15%, 45% 상승한 반면 기존 내연기관(ICE) 파워트레인 부품의 성장률은 '30년 -3%, '35년 -8%를 기록하며 감소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 자동차 부품 산업이 가치사슬 재편의 전환점에서 재도약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익 기반 재설정, 다지역 분산 공급망 구축 등 5대 핵심 과제 실행 필요

  - **(수익 기반 영구 재설정)** 포트폴리오 단순화, 소규모 공장·사업장 통폐합, 간접비·관리비 절감을 통해 손익분기점을 구조적으로 낮추고 운영 모델을 재고
  - **(다지역 분산 공급망 구축)** 관세 및 지정학적 리스크, 전기차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내연기관 및 전기차 파워트레인 생산라인의 유연성 확보, 핵심 부품에 대한 이중 조달 체계 구축, OEM과 생산량 리스크를 균형 있게 분담하는 계약 체결 등 시행
  - **(미래 수익원 분야 선제 진출)** 기계식 제품에서 메카트로닉스 시스템으로 이동, 개별 부품에서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통합 시스템으로의 전환 등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산업·에너지·항공우주·전자 등 인접 분야로 사업을 다각화
  - **(AI 기반 운영)** AI를 기반으로 엔지니어링·운영·공급망·영업 전반의 소프트웨어 개발과 문서화, 일정·유지보수·품질 관리, 중단 시나리오 대응, 주문 경로 및 재고 조정, 가격 책정·리스크 관리 등을 최적화
  - **(AI 시대 인재 전략 재정립)** 체계적인 업스킬링·리스킬링, 소프트웨어·데이터·AI 중심의 리더십 확보, 지속적인 변화를 수용하는 조직 문화 구축 추진

(참고 : BCG, 2026 Global Automotive Supplier Study, 2026.03.05.)

## 영국 배터리 산업 구조와 시장 동향 (英 DBT, 2.26)

- 영국 기업통상부(DBT)가 자국 배터리 산업 기업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산업 현황을 정리

  - \* 기업통상부는 공개 데이터, 내부 자료, 데스크 리서치, 정부·산업 이해관계자 자문, 기업 인터뷰 등을 활용해 배터리 설계·제조·소재·재활용 등 가치사슬 전반을 포괄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기업 재무 정보, 산업 활동 유형, 지리 데이터 등을 체계화
  - 이번 연구는 '24년 4분기~'25년을 기준으로 영국 배터리 산업의 현황에 대한 실증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정책 및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
- 조사 결과, 영국 배터리 산업에는 총 290개 기업이 445개 사업장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79%는 영국 소유 기업인 것으로 파악

  - 해당 부문의 총 고용 인원은 10,470명, 총 매출액은 41억 6,700만 파운드로 추산되며, 평균 기술 성숙도(TRL)는 8.2를 기록
  - 4억 6,800만 파운드 규모의 보조금·지원금을 수령하고, 65억 5,700만 파운드의 자금 조달 및 민간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집계
  - 기업 규모 측면에서 전체의 52%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매출의 8%에 그친 반면, 31%인 대기업 및 다국적 기업은 매출의 91%를, 17%인 스타트업은 1%를 차지
- 세부 분야별로 모듈·팩(110개)과 배터리 서비스(105개) 부문에 기업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매출의 경우 모듈·팩(16억 2,500만 파운드)과 배터리 등급 소재(10억 8,000만 파운드) 부문이 큰 비중을 차지

### ▪ 영국 배터리 산업 주요 데이터 ▪

분야	기업수 (개)	매출액 (100만 파운드)	고용 (명)	보조금/지원금 (100만 파운드)	민간 투자 (100만 파운드)
원자재, 채굴·정제	20	385	610	38	94
배터리 등급 소재	40	1,080	970	51	446
셀 구성 요소	20	289	910	18	41
전극·셀	35	272	1,040	62	3,610
모듈·팩	110	1,625	4,570	105	5,151
재사용, 수명주기 종료, 환경전과정평가	35	560	2,220	42	1,093
배터리 서비스	105	1,074	3,350	283	1,662
전체	290	4,167	10,470	468	6,557

※ 개별 기업이 여러 세부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어 각 항목의 합계는 전체 수치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모든 수치는 반올림

(참고 : DBT, UK battery sector: mapping research, 2026.02.26.)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의 미국 시장 전략 (日 하마킨종합연구소, 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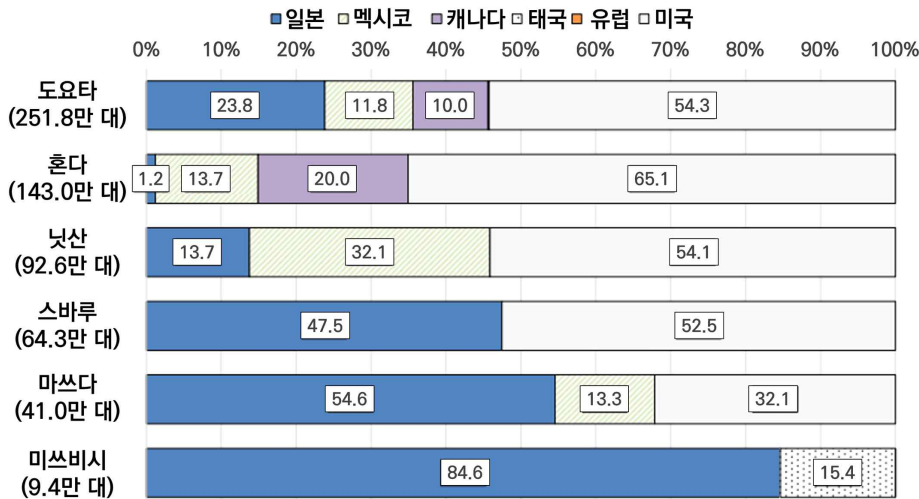
○ 하마킨종합연구소는 관세 인상 등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일본계 업체의 경쟁 우위 확보 전략으로 ‘합리적 가격’과 ‘하이브리드차(HEV)’를 지목

- 수입차 관세 인상과 지속적인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미국 자동차 시장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일본계 제조업체는 가격 및 생산지 조정을 통해 현지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모색

\* '25년 미국 내 승용차 판매 대수가 전년 대비 2.5% 증가한 1,635만 대로, 3년 연속 전년 실적을 상회

- 도요타는 미국 사업에 향후 5년간 최대 100억 달러 추가 투자 계획('25.11)을 발표한 데 이어, 중장기적으로 현지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을 현지에서 개발·생산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전략을 추진할 방침

▪ '25년 미국 판매 차량의 수입처(생산국)



○ '26년 일본계 자동차 제조업체는 ‘합리적 가격’과 ‘하이브리드차’ 두 가지 전략으로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 확보 추진이 필요

- (합리적 가격) 최근 물가 상승으로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미국 전체 평균(50,326달러)을 하회하는 일본계 업체의 차량 가격대('25.12월 기준 3~4만 달러)가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 (하이브리드차) 미국 내 HEV 점유율이 '22년 5.4%→'23년 7.2%→'24년 9.5%→'25년 11.8%로 꾸준히 확대되는 가운데 일본계 브랜드 전체가 72.9%를 점유하고 있는 만큼, 동 분야의 강점을 적극 활용한 시장 공략이 유효할 전망

(참고 : 浜銀総合研究所, 関税影響を打ち返せ、日系自動車メーカーの勝ち筋を探る ~ 米国市場でのキーワードは「アフォーダブル」と「HEV」~, 2026.02.24.)

## 정책 동향

### 미국 제조업 분야 과잉 생산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美 USTRS, 3.11)

-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제조업 분야의 구조적 과잉 생산 문제와 관련해 주요 교역국의 정책과 관행을 조사하기 위한 무역법 301조(Section 301) 조사에 착수

  - **(목적)** 해당 행위·정책·관행의 불합리성, 차별성, 미국 무역 제한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취지
  - **(대상)** 대규모·지속적인 무역 흑자, 미사용·유휴 생산 능력 등을 통해 다양한 제조업 분야에서 구조적 공급과잉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되는 국가
    - ※ 조사 대상국은 중국, 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
  - **(계획)** USTR은 조사 대상국의 정책·관행의 불공정성이나 미국 상업 활동 제한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각국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공청회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필요 대응 조치(관세 등)를 결정할 예정
    - ※ 조사 개시(3월 11일) → 서면 의견 제출 및 청문회 출석 요청 접수 시작(3월 17일) → 서면 의견과 청문회 출석 요청, 증언 요약 제출(4월 15일) → 공개 청문회 개최(5월 5일, 필요시 5월 8일까지) → 청문회 후 반박 의견 제출(공개 청문회 마지막 날부터 7일 후까지)
- 미국 정부는 다수 무역국이 자국 내 수요를 초과하는 생산 능력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시장에 대한 과잉 공급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 과잉 생산이 미국 제조업을 저해하고 재산업화 추진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

  - ※ 미국 정부 추산에 따르면 전 세계 제조업 설비 가동률은 75.0~75.9%에 머물러 있으며, 다수 부문에서 적정 가동률인 약 80%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
  - 과잉 생산 문제는 보조금, 국영기업의 비상업적 활동, 자국 내 임금 억제, 시장 접근 장벽, 금융 지원, 환경·노동 규제 완화 등 정부 개입 정책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
  - 구조적 과잉 생산으로 인해 미국 제조업의 투자와 자국 내 생산 확대가 저해되고 공급망 재편(reshoring) 정책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
    - ※ 지난 15년간 미국의 설비 가동률은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중 79.9%로 정점을 찍은 후, 바이든 대통령 임기 말인 '24년 11월 75.2%까지 하락
  - 과잉 생산 분야에는 알루미늄, 자동차, 배터리, 시멘트, 화학제품, 전자제품, 에너지 제품, 공작기계, 기계류, 비철금속, 로봇, 위성, 반도체, 선박, 태양광 모듈, 철강, 운송 장비 등이 포함

(참고 : USTR, USTR Initiates Section 301 Investigations Relating to Structural Excess Capacity and Production in Manufacturing Sectors, 2026.03.11.)

미국 제조업 리쇼어링의 병목 : 인력 부족 문제 (美 CSIS, 2.27)

-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미국 제조업 리쇼어링 정책의 핵심 장애 요인으로 숙련 기술 인력 부족 문제를 지목하고, 인력 확충을 위한 교육·이민·통상 정책 방향을 제언

  - 상호관세('25.4) 부과 이후 제조업 일자리 약 7만 개가 감소하고 전체 고용도 3년 연속 하락하여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하회하는 등 재산업화 목표 달성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한 상황
  - ※ '33년까지 380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창출되는 가운데 이 중 190만 개가 미충원 상태로 남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30년까지의 경제적 손실이 1조 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 제기(딜로이트, '24)
  - ▲현직 제조 근로자의 1/4 이상이 퇴직 연령기에 접어든 인구학적 문제 ▲제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따른 젊은 세대 진입 저조 등이 숙련 기술 인력 육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분석
  - 미국 정부가 초당적 입법과 관세 조치를 토대로 공급망 복원력 강화 및 첨단 제조 역량 확대를 도모하고 있으나, 자본·비용 구조 전환만으로는 그 성과를 담보하기 어려우며 숙련 기술 인력의 대폭 확충이 필수적
- 특히 제조업은 미국 혁신·경제·안보 측면의 핵심 산업으로, 인력 부족 문제가 생산 역량과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 요인으로 작용

  - '23년 제조 기업의 미국 내 R&D 지출은 3,940억 달러로 전체의 55%를 차지하고, '22년 말 기준 전체 등록 특허의 69%가 제조업에서 발생
  - 반면 '24년 인력·기술 부족으로 미국 제조 공장의 20.6%가 완전가동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고령 근로자 퇴직 시 인력 양성에 활용될 암묵지가 함께 유실되는 문제 심화
  - 첨단 반도체, 전투기, 잠수함, 방어 체계 등의 생산 시 숙련 인력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인력 부족으로 미 해군 함대 구축 목표 달성에 차질을 빚는 등 국가 안보에도 영향
- 인력 격차 해소와 공공 투자 성과 실현을 위해 교육 경로 확대, 이민 정책 개혁, 관세·통상 정책의 균형 확보 등 다층적 정책 대응 필요

  - **(교육)** 젊은 세대에 현대 제조업을 소개하고 기술 역량을 갖출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학생·근로자, 커뮤니티 칼리지·직업학교, 기업 간 유인 구조를 조율하는 주·지방 정부의 역할 강화
  - **(이민 정책)** '24년 기준 이민자가 미국 제조 근로자의 약 1/5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현행 정책이 해외 인재 유입을 제약하고 있으므로 이민 정책 개혁을 통해 글로벌 인재풀 활용 도모
  - **(관세·통상 정책)** 관세·무역 조치가 자국 내 생산 강화를 목표로 하나, 비용 상승으로 기업의 인력 투자·훈련·채용 여력을 제약할 수 있는 만큼 공급망 안보와 인력 육성 간 균형 모색

(참고 : CSIS, Innovation Lightbulb: Reshoring's Bottleneck - The Manufacturing Workforce, 2026.02.27.)

**미국 전략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한 산업 정책 부활 (美 CSIS, 2.26)**

-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미국이 핵심 광물 공급망을 확보하고 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 정책 기초를 전면 재개하였다고 분석
  - 중국 외 지역의 핵심 광물의 채굴·가공 역량이 부족한 가운데 상업적으로 활용 가능한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 가능하고 전략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지분 투자, 가격하한제, 공공 조달, 전략 비축 등을 통해 적극적인 정책 개입 추진
  - ※ 미국 정부는 이전에도 공급 충격과 전시 취약성에 대응하기 위한 실용적 전략으로 산업 정책을 활용해 왔는데
    - ▲최저 가격제(Price Floors, 1948) ▲전략 광물 구상무역 프로그램(Barter for Strategic Minerals, 1954)
    - ▲국방 비축물자 재건(Reviving the National Defense Stockpile, 1981) 정책 등이 대표적
-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핵심 광물 시장 안정화, 미국 및 동맹국의 역량 강화, 특정 공급망에 대한 집중도 축소를 목표로 포괄적인 산업 정책 수단을 동원

**■ 핵심 광물 관련 주요 산업 정책**

주요 전략	주요 활동
프로젝트 볼트	• 공급 차질 발생 시 제조업체가 60개 핵심 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전략적 비축 프로그램으로 수출입은행(EXIM)이 100억 달러 규모의 대출을 지원
지분 투자	•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외 전략적 핵심 광물 자산에 직접 지분 투자
공공 조달	• 장기 구매 계약을 통한 공급망 다변화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 최대 희토류 생산 기업인 MP Materials의 자석 생산시설 '10X' 생산량 전량을 구매하는 10년 계약 체결
해외 공급 협정	• 콩고산 구리 10만 톤을 미국으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광물 협력 강화
가격 통제	• 슈퍼 자석의 핵심 원료인 네오디뮴-프라세오디뮴 산화물(NdPr)에 대한 가격 하한선을 설정하고, 동맹국 간 핵심 광물 우대 무역 지대(최저 가격 적용) 구축 도모

- 정부의 대규모 지원에도 불구하고 광물 프로젝트는 여전히 경제적·기술적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핵심 광물 지원 정책이 안정적인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과 지속적인 민간 투자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조치가 필요
  - **(공식 발표 전 철저한 검증 완료)** 전략적 핵심 광물 이니셔티브 추진 시 공식 발표 전 철저한 기술적 및 상업적 타당성 실사를 완료함으로써 장기적 성공을 모색
  - **(단계별 성과에 기반한 연방 지원 체계 마련)** 연방 대출, 보조금 지급, 구매 계약 등의 연방 지원을 프로젝트의 단계별 성과에 근거해 집행하여 납세자의 세금을 보호
  - **(동맹국과의 공급망 구축)** 미국 내 공급망의 경쟁력이 부족한 경우 연방 자금을 과도하게 투입하기보다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병행 전략을 추진

(참고 : CSIS, Industrial Policy Is Back—And Minerals Are at the Center, 2026.02.26.)

## 유럽 자동차 반도체 산업 공급망 강화 방안 (歐 CLEPA, 2.27)

- 유럽자동차부품공업협회(CLEPA)가 역내 반도체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한 핵심 정책인 「EU 반도체법」 개정 방향을 제시

  - 자동차 부품 산업은 EU 전체 R&D의 30%(연간 300억 유로 이상)를 투자하고 매년 3.9만 건 이상의 신규 특허를 등록하는 유럽 내 최대 반도체 사용 분야 중 하나로, 공급업체 전체 가치사슬을 강화할 수 있는 보다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
- 기존 「EU 반도체법」은 생산 확대와 공급망 안정성을 목표로 하나 인증 요건·생산 현실·수리, 재사용과 재활용 등 자동차 반도체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존재

  - KPMG 보고서('21)에 따르면, 글로벌 자동차 반도체 시장이 '40년까지 최대 2,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현재 유럽의 전체 반도체 가치사슬 점유율은 약 10%, 특히 조립·패키징·테스트 분야 점유율은 약 4% 수준에 불과
  - 기존 「EU 반도체법」이 제시하고 있는 '30년 글로벌 점유율 20% 목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며, 프론트엔드 중심 전략만으로는 전 가치사슬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 한계
- 이에 CLEPA는 「EU 반도체법 2」를 통한 자동차 반도체 산업 공급망 강화 방안을 제안

  - **(산업 적용과 가치사슬 통합을 핵심 목표로 설정)** 투자가 경쟁력 있는 산업 솔루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명확한 연구-제조-시장(lab-to-fab-to-market) 경로를 수립
  - **(경쟁력 있고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 조성)** 높은 에너지 비용, 복잡한 인허가, 인력 부족 등 가치사슬 전반의 구조적 투자 제약 요인을 해소해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을 조성
  - **(자동차용 칩셋 및 첨단 패키징 기술 표준화)**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SDV) 전환에 대응해 차량용 칩셋과 첨단 패키징 인터페이스의 표준화를 촉진함으로써 부품·시스템 이종 통합 지원
  - **(반도체 전용 예산 편성)** 유럽경쟁력기금(ECF) 내 반도체 전용 예산을 수립하여 국가 단위 재원만으로는 추진하기 어려운 대규모 투자의 추가 지원 메커니즘으로 활용
  - **(자금 지원·행정 절차 간소화)** 혁신 촉진, 경쟁력 유지를 위해 가치사슬 전반의 승인·허가·자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일정과 프로세스 등을 명확화
  - **(전략 분야 공공조달 활용)** 자동차 등 전략 분야의 공공조달을 활용한 유럽산 반도체 수요 신호로 역내 설계·제조 부문 투자를 촉진
  - **(거버넌스 강화)** 반도체 제조업체와 장비·소재 공급업체, 자동차 등 최종 사용자 산업이 참여하는 상설 고위급 협의체를 구축해 위험을 조기 식별하고 시스템 차원의 의존성을 점검
  - **(개방성 유지 및 국제 파트너십 증진)** 개방형 무역 기조를 유지하면서 한국·일본·아세안 등 신뢰 가능한 국가와의 협력을 확대해 기술·소재·시장 접근성을 확보

(참고 : CLEPA, Chips Act II: Reinforcing Europe's automotive semiconductor supply chain, 2026.02.27.)



**kiat**  
산업기술 동향 위치